

톱날을 마련한 목수



재단이사장 이 강 희

사천여 노동자의 고결한 뜻이 모여 황량한 바닷가 한 귀퉁이를 다지고 다듬어 조용한 파문으로 인항 역사의 장을 열어 이 땅의 동양들을 가꾸어 낸 지 일곱번째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인항인의 순수한 지성과 뜨거운 감성이 빚어낸 교지 <인항> 제5호의 발간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동안 인항고등학교는 내외적인 많은 변화와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운동장의 시설물도 제법 어울리게 자리를 잡았고, 학생들의

생활공간인 교실은 적당히 손때가 묻어 정겨움이 넘치며, 찬바람만이 기를 퍼던 주위 환경도 사람 냄새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벅찬 일은 매년 어색한 모습으로 인항고등학교과 인연을 맺은 후 어엿한 동량이 되어 꿈을 펼치며 떠나가는 인항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전국 어느 대학이든 인항의 졸업생이 없는 곳이 없으며, 지역사회 곳곳에도 인항인의 손길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삶 한 가운데에 언제나 인항이 있으며, 그들의 맥박속에 인항의 숨결과 뜻이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항인 여러분!

無에서 有가 창조되듯이 여러분들이 엮어낸 풍성한 열매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는 끝없는 인항의 밝은 미래를 믿으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신설학교라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높은 진학률로 졸업생들을 배출함으로써 수십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기존 사학들의 부러움을 사며 지역 주민들에게 당당한 교육의 터로 인식되는가 하면, 각종 경기대회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둬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놀라게 하고, 발족한 지 몇 해 되지 않는 씨름부가 전국대회(대통령배기)를 휩쓸고 가두 행진을 할 때의 감격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여기서 만족해 하고 '이만하면 됐지'하는 자만의 구렁텅이로 빠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설익은 결과가 빚어낸 안타까운 장면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1994년도는 우리 인항에게는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지만, 국내적으로는 너무나 충격적인, 가슴아픈 사건들이 우리의 심장을 질식시켰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제법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품위를 갖추지 않았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순간 나타난 대형 사고들은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한, 방향을 상실한 국정의 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물로서의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만의 아픔은 너무 컸습니다.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

겨 놓았습니다.

인항인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한번쯤 '이제는 여유가 있어' 하고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심하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톱날을 마련한 목수에 불과합니다. 톱날을 갈고 갈아 큰 기둥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주체적 자아 형성에 삶의 햇빛을 밝히고 자기가 설 자리를 찾는 연구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설자리, 곧 우리의 지표- 우리의 설 자리를 의미있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태와 안정은 우리의 적입니다. 선진적이며 진보적인 영양분을 섭취하여 비옥한 토양에 뿌리 튼튼한 큰 나무로 자라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사장으로서 끊임없는 격려와 필요한 교육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의 웅비의 날개짓을 도울 것입니다. 힘차게 우리의 자리를 찾아 출발합시다. 그것이 우리 인항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